이중결혼이 답이다

(고전7:25~40)

25.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 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9.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0.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32.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 장가 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중결혼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이중국적이 가능한 나라의 사람이 또 다른 이중국적이 가능한 나라로 갔을 때, 예를 들어 미국이 이중국적이 가능하고 호주가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미 결혼한 사람이 호주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나 지사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또 다시 호주의 국적을 취득

하고 거기서 또 결혼하는, 이런 이중결혼이 가능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이중국적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데, 이중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만 말해도, 한국에서 외국인이 결혼을 하려면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공관에서 발행하는 미혼증명서가 있어야만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중국적이 가능한 나라들을 오가면서, 혹시 이중결혼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앙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거의 모두가 다 이중결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중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의 현실인데, 이중결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다면, 이게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반드시 이중결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이중결혼 생활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앞에서 얘기한 것들 또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독신이 좋지만 그러나 결혼해도 무방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서 가지 가지 측면으로부터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이건 왜냐하면 독신이 좋다고 하는 취지의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결혼과 이혼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답을 하면서 가르침과 권면을 주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결혼생활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게 함이라든지, 훌륭한 남편이 아니면 훌륭한 아내가 되게 하려 함이라든지, 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에 관한 답이 뭐로 결론이 나냐 하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이치에 합당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결혼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를 섬기는 일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을 이치에 맞게 함으로써 주를 섬기는 일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치에 합당한 결혼생활, 그럼으로써 주님에 대해 섬기는 일이 흐트러짐이 없게 되는 그런 결혼 생활.
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는, 할아버지가 셋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할아버지는 직접 못 뵈었는데 나머지 두 할아버지는 제가 직접 뵈었어요, 이 남한 땅에서.
그리고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오랫동안 소식을 끊겨진 채로 살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제 할아버지가 됐냐 하면,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부인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본부인에게서 나오신 아드님이시고, 제가 만난 할아버지 두 분이 각각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나오신 할아버지들이십니다.
며느리인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어떻게 세 부인과 생활을 했냐 하면, 큰 한약방을 경영하셔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사를 지낼 때면 본부인이 그 제사에 참여합니다.
또 동네에서 유지로서, 무슨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도 본부인을 대동합니다.
그리고 보통 때 사실 때는 어디 가서 사시냐 하면, 두 번째 부인 집에 가서 사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림을 잘 사시고 음식 솜씨가 좋으셨다고 그럽니다.
본부인은 키도 크고 굉장히 잘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부인은 여우같대요, 저희 할머님 말씀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니시든지, 어디 무슨 뭐 출장을 가신다든지, 예를 들어 만주에 계시면서 대구로, 대구 한약골목 있지 않습니까? 약재골목, 그리로 약을 구하러 오신다든지 이럴 때는 셋째 부인을 대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할아버지가 각각,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나신 분들이고, 그 세 증조할머니와 사시는데 있어서, 나름 엄격한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그 집안이 잘 운영됐다 그래요.
저희가 믿기 시작한 건 할머니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긴다는 것도 바로, 이중결혼 생활에 대한 이런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중결혼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사도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바울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닙니다.
결혼전문가로서의 의견 개진이 아닙니다.
결혼을 여러 번 해보고 나서 인생 경험에서 비롯되는 지혜가 아닙니다.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은 쇼생크 탈출을 수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빠져 나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운데, 그 입장에서 결혼을 볼 때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결혼입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결혼이 뭡니까? 남녀가 만나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독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내용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것을 말하고, 주님과 결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필연적으로 이중결혼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독신은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결혼은 이중결혼을 말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마치,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암암리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내서 밝혀서 이중결혼 생활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이중결혼 생활은 어떤 이치를 따라서 해야 되느냐, 이중결혼 생활의 엄격하게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이냐를 지킴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믿는 일에, 결혼을 통한 방해를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당한 원칙을 따라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 주님의 섬기는 일, 주님을 믿는 일에 결혼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자! 이제부터 이치에 합당하게 되는 법을 우리가 한 번 살펴봅니다.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또 독신의 좋음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28절에 마지막에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라 함은, 고린도전서를 쓴 시기를 AD55년에서 57~8년 정도로 잡습니다.
이제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주어질 때 결혼을 한 상태면 육신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 박해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육신에 고난이 온다는 말씀을 한 걸까요?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결혼 안 해도 육신에 고난이 있어요.
네로가 박해할 때 결혼한 사람만 박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남편이 박해를 받게 될 때, 내 마음은 이중으로 아픈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는 대상이 마음에 살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을 상실하게 되면, 살이 되어버린 대상이기 때문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너희를 아끼노라’라는 말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남편과 아내일 경우에,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또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내 마음에 살이 될 경우, 박해가 임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상실하는 그 찢어지는 아픔이 두 배, 세 배, 네 배로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치에 맞게 결혼생활을 함으로 주를 섬기는 일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결혼을 하더라도 이중결혼 생활에 임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

고, 마음가짐을 분명히 함으로,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이나 자식들이 살이 되도록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나?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넘어갑시다, 마지막에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랑함이 없는 가정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이 나오니까, 어쨌든 마음이 사랑해서 붙들면 살이 되고, 그것이 상실 될 때 찢어지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우리를 아끼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게 하나의 이치입니다.

또 두 번째는, 29절부터 뭐라 그러냐 하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여기서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이것을, 자꾸 학자들과 주석서가 초대교회가 종말이 임박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해 계신 주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도 앞선 현실로 마음에 느껴지게 되면,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코앞에 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특별히 무슨 환각에 사로잡힌 것처럼, '내일 모레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라는 시간적인 그런 촉박 감의 의미로 재림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는 박해 현실보다도 더 앞선 현실로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하늘나라가 보이는 현실보다 더 앞선 현실로 느껴지면, 임박한 종말론 주님의 재림이 제일 우선적인 사건으로 기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하늘나라가 제일 우선적인 현실이 되어야 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왜 이렇게 해야 하냐 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외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가정을 꾸미고, 나라가 있고 나라에서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하고, 외교활동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지구 표면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일들이 다 외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 있는 자인데 어떻게 없는 자 같이 하느냐, 울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느냐, 기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느냐?
한 마디로, 앞에서는 마음이 사랑함으로써 살이 돼서 찢어지는 아픔을 피하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 얘기는 마음이 행복과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 무엇엔가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내가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했다가는, 마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나뭇잎이 덮여 있어서 땅인 줄 알고 발을 딛었는데 그 밑이 함정이어서 쑥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 내 마음이 의존하는 대상이 생길 경우에 그 대상이 바로 함정이 된다 이거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알맹이가 없는 것들인데, 이것들에 의존해서 어떻게 변치 않는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것은 마음이 아픔으로 찢어짐을 염려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얘기는 마음이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결혼 생활을 위한 두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 같이 한다는 얘기는, 기쁜 일이 생겼는데 그 기쁜 일이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내게 지속적인 기쁨도 올바르게 실질적인 행복도 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마음을 떼라는 얘기입니다.
아내 때문에 기쁜 자들은 아내로부터 마음을 떼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기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데, 장가간 사람들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애인이 있는 사람 어떻게 애인을 기쁘게 할까, 마음이 갈린다는 얘기에요, 마음을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랑해서 마음에 살이 되어 마음이 찢어진다.
두 번째 원칙은,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에게도 마음이 기대지 말라, 기대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다,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원칙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원칙들을 통해서, 이치에 합당하므로 주를 섬기기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주님뿐이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을 얻기 위해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주님뿐이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쏟아 부어야 될 대상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중결혼 생활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럼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유지되는가?
마음이 사랑도 하지 않고, 서로 의지도 않고, 서로 배려하고 염려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부부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을 완전히 사랑도 의지도 그리고 염려함으로 마음을 드림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께 다 드리게 될 경우에, 이 땅에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나 하면,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흘려보내는 하늘의 기운을 올라타고 그 흐름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남편을 사랑하는 그 하늘의 기운의 흐름을 따라서 올라타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던 방법이에요.
서로 판단을 못합니다.
선악의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아내를 봐도 물끄러미, 남편을 물끄러미 멍~하게 바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임했냐 하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볼 때 하와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냐 하면 '오직 내가 의존하여 아담의 삶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완성이다',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가 그 뜻 아닙니까?
'아담의 삶이 완전하게 되면 그게 내 삶의 완성이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봐요.

내 마음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결혼,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마음으로 결혼했고, 이 땅에서도 몸으로 결혼해야

되는 이 이중결혼생활을 흐트러짐이 없이 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중결혼 생활의 원칙이 흐트러짐이 없이 합당하게 영위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아내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꾸려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사랑하므로 태어나게 된 자녀들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십자가에서 이미 끊어지게 하고, 마음이 행복과 기쁨을 위해 의존하고 있는 상태도 끝나게 하고, 염려하고 배려하느라고 마음을 빼앗겼던 마음도 다 회수해 들임으로써,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늘에서의 결혼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서 없어진 내 마음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서, 이 땅에서의 결혼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독신이 좋다 그러나 결혼해도 문제는 없다' 또 '독신이 좋다 결혼해도 문제는 없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염려하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에게 다~ 드려야만 되는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게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라면, 결혼 생활 때문에 이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일이 방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독신이 훨씬 좋고, 독신으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게 안 돼서 결혼을 해야 된다면 이중결혼 생활의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마음을 어떡하든지 하나님께 다 드림을 통하여 이 세상 결혼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영위하게 됨으로써, 하늘에서의 결혼도 이 땅에서의 결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복된 결혼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중결혼 생활의 분명한 원칙을 의식하고 행함을 통하여, 하늘에서의 결혼도 땅에서의 결혼도 온전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